



I 이달의 소식

- 1. 모임안내 1쪽
- 2. 신임간사소개 1쪽

II 내용

- 1. 노아 (11) 덩으로 사는 인생 - 이종헌 2쪽
- 2. The BIBLE Comes Alive(9) by Clifford Wilson - 이종헌 역 3쪽
- 3. Q&A (1) Who did Cain marry? - 길소희 발췌 8쪽
- 4. 창조단상 (12) 당신의 조상은 뽕~(?) - 박종환 10쪽

인사말

살롱! 평안하십니까? 날씨가 제법 싸늘해져갑니다. 도저히 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장마도 그치고, 이제는 밤이 점차 길어지며 은근히 추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까지 추워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극과 극으로 갈라지려는 요즈음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마음으로 공경하며,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을 아끼고 가꿔주며...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장 이종헌 올림



1. 10월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매월 정기 스터디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월(10월)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03년 10월 16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무실(동일교회 세계복음센터 103호)

내용: "Bible Comes Alive(성경고고학 연구)"

발표: 이종헌

약도: 문의전화 (053)743-6058

2. 새로 오신 간사님을 소개합니다.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사역을 돕기 위해 새로 간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름은 길소희 간사님이시구요, 경북대학교 지질학과를 나오셨고, 학교 선생님이시다가, 우리 창조과학회 전임간사님(수습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제교회 출석하십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직접 방문하셔서, 대화를 나누세요. ^^; **창조**



노아 (11) 덤으로 사는 인생

이종현 (경일대 교수, 토목공학)



덤으로 사는 인생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평상시 주일 낮 예배에도 가끔씩 빠지던 교인 한명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암이래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교회의 모든 예배 및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기도회에서 모습이 안보입니다. 주일날 찾아오더니 오진이였답니다. 그리고는 그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암과 같이 어려운 병에 걸리면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대개는 이런 서원기도를 합니다. 『이번 병만 낫게 해 주신다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을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들 말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그런 서원을 잘 갚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생명을 15년 연장 받고, 그 당시 천하무적이었던 앗수르의 산헤립 왕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침략자가 공격하고자 하는 성을 둘러싸고 기다리고 있으면, 성안에 있는 사람들은 식량과 물이 떨어지면 항복을 하던 그런 식이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기혼샘을 막아서 성안의 인공 못인 실로암까지 수로터널을 뚫어 앗수르의 공격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당시의 대 제국 앗수르의 산헤립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결국은 자기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경과도 모두 기적적입니다. 병든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갖다 놓았을 때 그 상처가 나았고, 회복에 대한 징표로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징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고,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교만을 뉘우치기는 하지만, 결국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쌓아 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으며, 또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덤의 인생을 잘못 알았습니다. 연장 받은 15년의 삶만을 덤으로 알았고, 또한 그 덤의 인생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태어난 순간부터 덤이였습니다. 자기의 삶은 처음부터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였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이후가 덤의 인생이 아니라, 죽었던 영이 살아난 이후의 삶이 덤의 인생입니다.

12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노아도 덤의 인생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소설 같던 홍수도 끝나고, 자식들은 번창하고, 나의 이생에서의 임무를 잘 마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려가기 전까지 인간적인 즐거움을 조금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내게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 포도주를 마시자!』

노아의 일을 거울삼아 우리는 구원 이후의 덤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참조**

단속 평형설/Punctuated Equilibrium - 또 다른 옛날이야기!

이제 하버드 대학의 Stephen Gould(및 몇몇 사람들)가 말하는 터무니없는 “단속 평형설” 논쟁을 보자. 그것은 이번 세기의 초반에 제의된 “희망적 괴물/Hopeful Monster” 이론의 재생이다. 그것은, 수천년 동안 “그대로의 상태”로 있다가 그 후에 갑자기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갑자기 새로운 생명체가 출현했는데, 물론 그것은 압수 두 가지 성이 있어야 하며, 그들의 수정기 동안에 서로를 만나서 자손을 낳을 수 있어야 하는 것 등이 필수적이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방대한 양의 종들(species) 모두에 대해 일어나야 한다. 심지어 진화론자들에게도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이 전혀 없다.

또 다시 이것은 “어른들을 위한 옛날이야기”이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구식의 다윈 이론을 대치하는 진화론으로 이것을 아직도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다!

옛날 방식,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바빌론의 *Enuma Elish*로부터 보다 최근의 “단속평형설”에 이르기까지, “희망적 괴물” 가설의 재생

인간의 세 가지 특색

인간은 아래의 인용에서 열거한 세 가지 외에도 여러 면에서 독특하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시리즈에 대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고고학으로부터 고의적으로 그것들을 택했다.

고고학으로부터 얻은 인간의 세 가지 특색

- 신/신들에 대한 타고난 믿음
- 미래의 생활에 대한 타고난 믿음
-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소위 무신론자들이 갈망하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신 혹은 신들에 대한 타고난 믿음이 있으며, 이는 시대를 뛰어넘어 문화에서 문화로 드러나 보이고 있다. 사람들은 신들의 형상을 나무로, 돌로, 진흙으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든다. 동물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만이 그렇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처럼 경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달래는 형태로라도, 그들이 찾고자 하는 높은 능력을 가진 이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공표하고 있다.

둘째로, 오직 인간만이 죽음을 넘어서 다가올 삶에 대해 어떤 것이든 준비를 한다. 인간은 종종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 떠났을 때 그 몸을 미라로 만들며, 자기의 시신을 묻는다. 아무 동물도 자기의 시신을 묻지 않는다: 죽음 이후에 어떤 방식이든 어느 곳에든 삶이 있다는 선언은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저승에서의 삶을 위해서, 음식과, 무기와, 미래에 담당할 임무를 새겨 넣은 목각 하인, 옷가지, 심지어 가구까지 챙겼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그 하나님을 찾으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안에 영생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세 번째로, 인간은 진정한 말/언어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모든 생물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진정한 말/언어에는 16가지의 설계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인간만이 16가지를 모두 갖고 있다. 이것은 인간과 침팬지가 가지고 있는 26가지의 주된 특징 및 부수적인 특징과 비교되고 대조적인 것이다. (듣기처럼) 인간에게는 주된 특징이 침팬지에게는 부수적인 특징인 것이 있으며, 침팬지에게는 주된 특징이 인간에게는 부수적인 것이 있다. 그 차이는 **종류의 차이**이지, **정도의 차이**가 아니다.

그런데 진정한 말/언어의 극치는 **기도**인데, 그것을 통하여 오직 인간만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창조주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원숭이 닮은 조상은 어느덧 지나갔다!

“따라서, (멧돼지의 이빨을 근거로 만들어낸!) 네브라스카인, (현대 원숭이의 턱 뼈를 가지고 만든!) 필트다운인, 진잔트로푸스 혹은 동아프리카인, 북경인, 네안데르탈인 등 하나 하나씩, 우리가 생각하던 원숭이를 닮은 조상은 어느덧 지나갔다. 그런데 Richard Leakey는 그 연구를 전부 다시해 보겠다고 연구비를 요청하고 있다”= Duane Gish

인류학은 진화를 증명할 수 없다. 필트다운인, 네브라스카인, 네안데르탈인, 자바인, 기타 다른 것들이 한쪽으로 치워졌다.

지질학은 진화를 증명할 수 없다: 실러칸스/coelocanth 물고기 및 삼엽충 등과 같은 시준화석/index fossil을 “잘못된 지층”에서 찾는 일이 지질학의 보증된 결과처럼 여겨지던 것을 혼란에 빠뜨렸다.

위아래가 뒤바뀐 나무 혹은 문자 그대로 십 수개의 지층을 관통하는 나무와 같은 다지층 화석은 결론적으로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격변이 있었음을 지적한다.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화석을 이용했고,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는 데에 암석을 이용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순환논리/circular reasoning는 매우 “비과학적”이다.

천문학, 생물학, 식물학, 언어학, 고생물학, 및 물리 등 기타 과학에서도 유사한 증거들을 댈 수 있다.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결가지”

“새로운 두개골이 일격에 한 일은, 초기 원시인류(hominid)의 모든 진화 과정을 뒤엎는 것이다.” -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고생물학자, Pat Shipman 박사

Pat Shipman 교수는 Richard Leakey 팀의 일원으로 글을 쓴다. 그는 케냐의 국립 박물관 관장이다. 1986년 9월판 *Discovery*의 편집인의 글에서 새로운 두개골의 발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거대한 이빨, 웅장한 갈기, 그리고 작은 두개골을 가진 고대의 당황스런 하나의 두개골이, 선행인류의 혈통을 혼란에 빠뜨렸다.” Pat Shipman 그녀 자신이 우리에게 말한다, “새로운 두개골이 일격에 한 일은 초기 원시인류의 모든 진화 과정을 뒤엎는 것이다.”』

그 잡지에서 Pat Shipman의 기사의 제목은 “계통도/Family Tree 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가지”이다. 그녀는 Donald Johanson, Richard Leakey, 기타 사람들의 관점을 논평하며, 고대 두개골의 순서에 대한 이전의 개념을 치워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면, 선조가 되는 원시인류의 종(species)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지금 곧바로 줄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에 대해 매우 분명한 개념을 더 이상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불편한 사태는 세 개의 간단한 설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Robustus(견장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Boisei로 진화하지 않았다. (2) Africanus는 boisei로 진화하지 않았다. (3) Boisei는 Africanus로도 Robustus로도 진화하지 않았다. 사실상, 우리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조상 종(種)을 찾고 있는지조차도 모른다.』

기사의 끝에 감사의 문구에서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지금은 고인류학의 새로운 시대이다. 우리가 상당히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리는 모른다.”

깜짝 놀랄만한 결론

마지막 문단이 놀랄만한 것이다. 고생물학자 Pat Shipman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어느 때 보다는 새로운 화석이 필요할 뿐 아니라, 우리의 낡은 개념을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나는 새로운 통합이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선택들 대부분이 이 영역의 많은 주요한 연구자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개념을 바꾼다는 것이 집을 이사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 또한 보다 자극적이다. 현장 작업의 시간과 고생과 경비를 지원해주는 때에는 이 새로운 두개골보다 더 나은 논쟁이 없다. 지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두개골은 우리의 잘 구성된 구조물을 골사나운 조각과 날카로운 새로운 가정(假定)으로 바꿔버렸다. 이것은 과학적 진보의 확실한 징조이다.』

지진과 마찬가지로 ... 과학적 진보!

사실 그것은 진화론이 절망적인 혼란에 빠졌으며, 철저히 불신을 받고 있다는 또 다른 징조에 불과하다.

“지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두개골은 우리의 잘 구성된 구조물을 골사나운 조각과 날카로운 새로운 가정(假定)으로 바꿔버렸다. 이것은 과학적 진보의 확실한 징조이다.” -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고생물학자, Pat Shipman 박사

믿음은 어디에 들어맞는가?

진화론자들은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생물발생설이 있는데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맞는 생물발생설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은 생물학자로서는 믿음의 문제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증거는 없다.” - G. A. Kerkut 교수

G. A. Kerkut 교수의 진술은 다윈의 진화론이 진정으로 아무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만큼 분명하다.

이것은 고립된 견해가 아니다. 유명한 철학자이며 언어학자인 Noam Chomsky는 (아메바로부터 인간까지 오직 한 선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직선 진화”는 인간의 진정한 말/언어의 발전을 설명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좋아한다면 그것을 진화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못한다. Michael Denton 박사(창조론자가 아님)는 *진화: 위기에 처한 이론/Evolution: A Theory in Crisis*이라는 도전적인 책을 썼다. 그는 한 개의 인간 세포의 상당한 복잡성을 지적했다. 즉, 그것은 뉴욕이나 런던과 같은 도시에 관련된 설계보다도 더 복잡하다.

이것들은 창조를 받아들여 달라는 열렬한 간청이 아니라, 자기 영역에서 매우 높은 자격을 가진 학자들의 정직한 평가이다.

Kerkut 교수가 비창조과학자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일어난 사건에 대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인용 글에서 보듯이, “어떤 생물발생설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결정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

창조론자는 그런 문제를 갖지 않는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창세기의 기록을 받아들인다.

진화론자들은 환상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한 개의 인간세포에 저장된 정보는 대단하다. 그것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단지 막연한 우연의 결과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은 사실을 논리적으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사실상, 그것은 창조와 진화의 논쟁이 일어나는 매우 많은 영역에 대해 사실이다. 종종 인용하는 병아리 얘기를 하자. 병아리는 엄마의 몸속에서 조그만 태아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들어있는 설계는 “단순히 우연한 진화”의 가능성을 넘어서서 놀랄 만큼 복잡하다.

수조개의 데이터 항목을 가진 한 개의 세포가 우연한 진화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믿음에는 사실상 환상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11:6에서 분명히 말했듯이 창조에 대해서도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진화가 사실이라면, 태아가 엄마의 몸속에 있는 껍질 속에 처음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음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까?

1. 병아리가 발에 대한 개념을 어디서 얻었을까?
2. 날개는 어떠한가? 날개가 반쯤 나왔을 때 병아리는 그것이 잘 작동할지 알아보기 위해 첫 번째 실험을 어떻게 해 보았을까?
3. 눈은 어떠한가? 둘러싸인 달걀껍질을 통과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갖고서, 자기 집인 그 껍질을 나오기 전에 몇 개의 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인식했을까?
4. 그리고 거기에는 음성장치가 있었다. 자존심 있는 병아리치고 후두가 없는 것이 없다. 이 작고 피 많은 병아리가 어떻게 해서 고도로 복잡한 동물 의사소통이라는 시스템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을까?
5. 그리고 물론,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특별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들 작은 병아리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정말로 이해하기 원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야만 한다. 사람의 아이는 태어난 후에 얼마간은 전혀 어찌할 수 없는 데, 그보다는 병아리들이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명백히 병아리는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지 않았다! 또한, 소화기, 심장, 간, 및 전체 병아리를 이루는 모든 다른 기관들이 작동하는 방법도 계획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설명에는 우연한 진화라는 가치 없는 체계에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Y에서 Z로 어떻게 넘어갈까?

사람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 분야로부터의 증거에 의하여 어떤 사람을 A에서 Y까지 데리고 올 수 있지만, Y에서 Z로 넘어가는 단계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사람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히브리서 11:6).

앞서의 구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그 길이다. 우리는 오직 그분에 의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우리의 죄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엡 2:8-10)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기도가 여기에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는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당신이 나의 삶에 들어와 주시기를 간구하려고 이제 당신께 나아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오늘 이후로는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묵상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37).

그분이 그렇게 뜻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Q & A(1) Who did Cain marry? - www.creationscience.net
길소희(창조과학회 간사) 발췌

Who Did Cain Marry?



We read in Genesis 4:16-17, "And Cain went out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dwelt in the land of Nod, on the east of Eden. And Cain knew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are Enoch: and he builded a city, and called the name of the city, after the name of his son, Enoch."(KJV) How many times has someone asked you the question, "Who did Cain marry? It doesn't take long to figure out that someone had to have married their sister. What's wrong with marrying your sister? For one thing it's against the laws of the land in America. Why? The laws of the land of America were initially founded upon the Constitution that was founded upon the Bible. Leviticus 18:9 says, "The nakedness of thy sister, the daughter of thy father, or daughter of thy mother, {whether she be} born at home, or born abroad, {even} their nakedness thou shalt not uncover."(KJV) I believe that if you walk through the following points the questions to who Cain married and the implications of it will be answered:

1. Adam was the first man (Gen. 2:7,18-19., 1 Cor. 15:45). Adam was to live eternally in the physical body, as long as he had access to the Tree of Life. Genetically he was without mutations (damaged genes), at least until after sin entered the world (Romans 5:12). Once sin entered the world, physical death was introduced (Hebrews 9:27).
2. Adam lived 930 years (Gen. 5:5).
3. Eve was given her name because she was to be the mother of all living (Gen. 3:20). She also was without damaged genes at least until after sin entered the world.
4. Adam and Eve had many sons and daughters (Gen. 5:4). (Jewish tradition proposes they had 33 sons and 23 daughters.)

5. Everything was very good when it was first created (Gen. 1:31).

6. When sin entered the world the goodness was corrupted (Rms. 5:12 cf., Gen. 3:17 and Rms. 8:18-22). The Romans 8:18-22 passage shows that the creation itself was cursed. Perhaps this was the institution of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Entropy heat death). This law basically says that all matter is decaying, that is, wearing out as a garment (Heb. 1:10-11; Is. 51:6; Ps. 102:25-26).

7. The canopy of Gen. 1:6-7 collapsed at the point of the flood (Gen. 7:11). This canopy had protected Earth from many of the harmful cosmic rays that effect longevity of life and the production of mutations(damages) to the genetic pool of all organics.

8. Abraham married his half-sister and was not rebuked for doing so (Gen. 20:12).

9. Laws of incest were not instituted until the giving of the Mosaic Law at Mount Sinai in approximately 1445 BC (Lev. 18-20). This was 2,555 years since Adam was created. This chronology is developed by working from 1 Kings 6:1 in both directions in the Old Testament. The year that is used for the beginning of Solomon's reign is 970 BC (See notes in the NIV Study Bible.)

Now we need to understand a little about how deformities come about : Each individual inherits a set of genes from their parents. Many of these genes are damaged (mutations). These damaged genes show up in various ways, e.g. one ear lower than the other, the nose not being centered on the face, etc. The closer two people are related,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y will have the same or similar damaged genes. Conversely, the further away two people are in their relationship to each other, the more likely it is that they will have different damaged genes. If a child inherits one damaged gene and one that is not damaged that is coded for the location of the nose, the good gene will tend to override the bad gene so that a serious deformity will probably not occur, e.g. nose slightly off center, not a major deformity. If a child inherits a damaged gene from each of their parents that is coded for the location of the nose, a serious deformity will probably occur.

Conclusion : Before sin entered the world there were no damaged genes. Once man sinned, things were no longer "very good" (Gen. 1:31). As a result of sin, the Earth was cursed (Romans 8:18ff.), and physical death began (Gen. 3:24 cf. Hebrews 9:27). With the collapse of the water-vapor canopy at the point of the Flood, the buildup of damaged genes greatly increased, as the Earth was no longer protected from harmful cosmic rays, at least to the extent that it had been prior to the Flood. Genes become damaged (mutations) by radiation and chemicals taken into the body through eating and exposure to the elements. Once these damaged genes are in the gene pool they remain there and are compound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rough selective breeding they might be reduced, but not eliminated. So, when Cain married a near relative he was not breaking God's laws on incest, as they had not yet been instituted. Also, this was prior to man's genetic pool becoming replete with damaged genes (mutations).

창조단상 (12) 당신의 조상은 뽕~(?)

박종환 (경북대 교수, 화학)

당신의 조상은 뽕~(?)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은 동물의 후손이라고 한다.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 보자.

사람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결국은 원숭이가 될 것이다. 원숭이도 아버지, 그 아버지로 올라 가면 최초의 원숭이가 있을 터이고 그 원숭이의 아버지는 개나 말 같은 포유류가 될 것이고, 또 그 조상은 조류, 양서류, 어류로 올라가게 되고 최고의 조상은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된다. 이때부터가 생명체이고 그 이전은 생명이 없는 무생물이다. 단세포 생물의 조상은 무엇인가? 진화론자는 코아세르베이트(coacervate)라고 하는 반액상(半液狀)의 단백질 덩어리라고 한다. 물론 무생물이다. 이것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또 단백질은 각종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아미노산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원시 대기에 존재하던 메탄, 수소, 수증기, 암모니아 등의 환원성 기체들이 번개 같은 전기에너지를 흡수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조상은 일차적으로 원숭이이지만(진화론의 주장대로 하면) 궁극적으로는 메탄이나 암모니아 같은 기체가 사람의 조상이라고 해야 정답이다. 재미있는 것은 암모니아는 요즈음 거의 없어졌지만 한 여름날 시골의 푸세(?)식 화장실 문을 열면 나는 특 쏘는 냄새의 기체이고, 메탄은 도시가스의 주성분이며, 우리의 뱃속에도 늘 있어서 가끔 실례하면 배출되는 가스의 한 성분도 된다. 그러니까 “당신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면 진화론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예, 저의 조상은 제 뱃속에 있는 뽕~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참 이상한 것은 조상을 거의 신처럼 모시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원조(元祖)인 원숭이들을 공원에 가두어 두고 놀려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불효막심한 후손이 어디에 있는가? 동방예의지국에서...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를 방문 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날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